



서울

• 12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3.8% 증가

- 전년동월대비 3.8% = 소매업의 기여도 -0.9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+4.6%p
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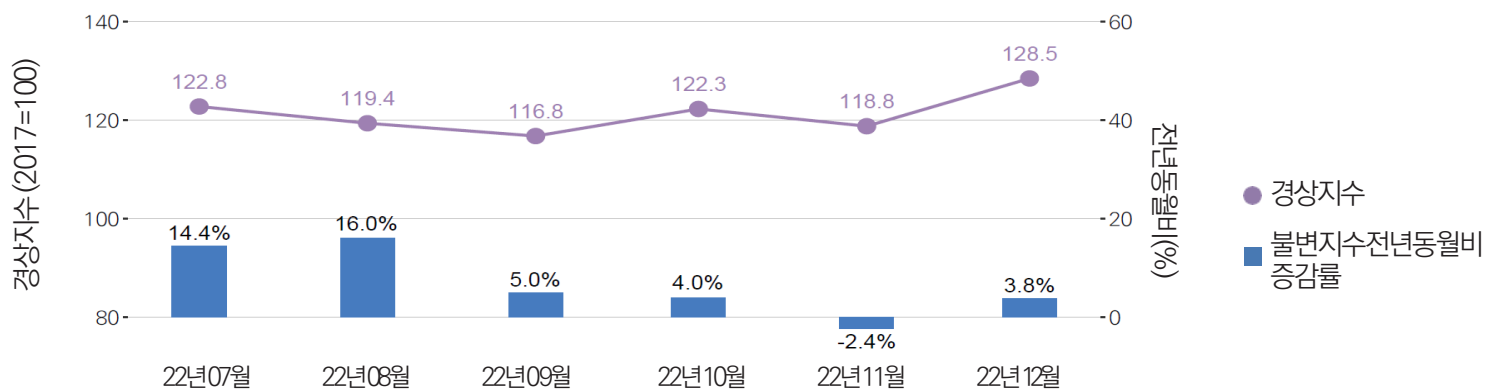
※관련 설명은 부록의 '기여도' 참조

- 12월 서울 소비경기지수(불변지수) 증감률은 물가상승폭 감소(2022년 들어 처음 6%대로 감소,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 기준)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확대된 대면모임에 힘입어 증가세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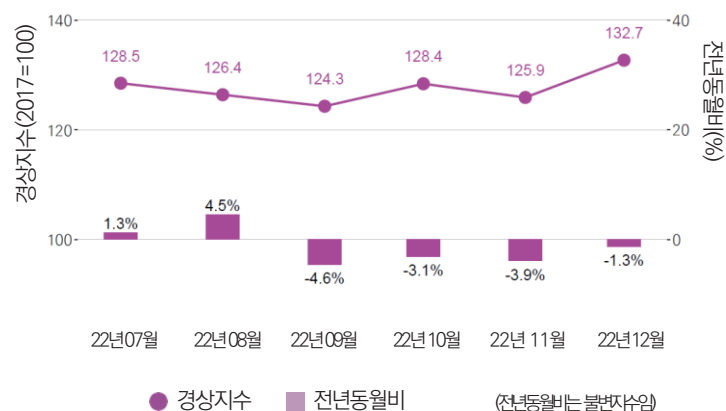
•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-1.3% 감소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13.2% 상승

- 12월 서울의 소매업은 종합소매업, 의복·섬유·신발의 감소폭 축소, 무점포소매 증가율 상승에 힘입어 감소세 완화
- 종합소매, 의복·섬유·신발, 음식료품, 가전제품·정보통신, 연료 업종의 감소폭은 축소
 - 12월 서울은 무점포소매, 기타상품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
 - 반면, 기타가정, 가전제품·정보통신, 연료, 문화·오락·여가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
- 서울의 숙박·음식점업은 주점·커피전문점업과 음식점업이 증가율을 견인
- 주점·커피전문점, 음식점업의 소비 확대, 숙박업은 감소폭 축소
 - 12월 서울의 숙박·음식점업은 주점·커피전문점, 음식점 순으로 소비증가

| 서울 소비경기지수



| 서울 소매업 소비경기지수



| 서울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

